

# 《訓蒙字會》 ‘人類’ 部の 漢語 어휘 연구

李順美\*

## <목 차>

1. 서론
  2. 《訓蒙字會》 ‘人類’ 部の 漢語 어휘
    - 2.1 《訓蒙字會》 註釋 中の ‘俗’의 의미
    - 2.2 ‘人類’ 部の 수록 漢語와 漢語 선정의 기준
    - 2.3 近代漢語 著作에서의 용례 및 近代漢語 어휘로서의 특징
    - 2.4 ‘人類’ 部 漢語의 성격과 특징
  3. 결론
- 부록: 《訓蒙字會》 ‘人類’ 部 원문

## 1. 서론

《訓蒙字會》는 중종 22년(1527) 崔世珍에 의해 편찬된 교재이다. 모두 上·中·下 3권에 3360개의 표제 한자를 담고 있다.

《訓蒙字會》는 비록 표면상으로는 한자 학습교재이지만, 그 안에는 한자의 우리말 음과 훈, 용법 풀이 및 해당 한자의 중국어 표현이 들어있는 종합 어학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표제 한자 중 그 주석에 漢語<sup>1)</sup> 어휘가 소개되어 있는 글자가 무려 797개<sup>2)</sup>에 달하는데, 한 글자에 여러 개의 漢語 어휘가 소개

\* 漢陽大學校 講師.

1) 본고에서 지칭하는 《訓蒙字會》의 漢語는 《訓蒙字會》의 표제자의 주석 중 ‘俗呼’, ‘俗稱’ 등 ‘俗’ 뒤에 등장하는 어휘만을 지칭하기로 한다.

2) 김기영의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중심으로 한 최세진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 (2008) 중 ‘부록: 속(俗)으로 대표되는 중국어 어휘’에 정리된 표제 한자의 개수.

된 경우도 많으므로 漢語 어휘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訓蒙字會》의 저자 崔世珍은 조선시대 국어학, 한학, 중국어학 방면에서 모두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던 언어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역관이었다. 그런 그가 만년에 저술한 《訓蒙字會》는 그의 언어학적 지식과 언어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집약되어 있는 교재일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동안 《訓蒙字會》는 국어학 및 한자 음·훈 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註釋 속에 소개된 漢語 어휘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近代 漢語의 연구 자료로서 《訓蒙字會》에 수록된 漢語 어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訓蒙字會》에 관한 기존 연구 중 중국어학적 측면에서 《訓蒙字會》의 편찬 동기를 다룬 연구로는 이상도의 <訓蒙字會 編纂動機와 特徵>(1992)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훈몽자회의 편찬 동기가 '한문 초학자들로 하여금 詩經 등 經書 강독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단어 정리까지 되어 있는 한문교재를 편찬하여, 주석서, 어록 등 백화로 쓰인 서적들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김기영은 박사논문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중심으로 한 최세진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2008)에서, 최세진은 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이중언어 학자였으며, 그의 저서 《訓蒙字會》는 국어학·중국어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논문에 '속(俗)으로 대표되는 중국어 어휘'를 부록으로 실어 연구자에게 《訓蒙字會》에 수록된 중국어 어휘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문기는 <어휘 학습서로서의 《훈몽자회(訓蒙字會)》 — 《훈몽자회》 중(中)의 '인류' 항목을 중심으로>(2009)에서 '인류' 항목의 한자 어휘의 배열을 살펴보았다. 그는 《훈몽자회》 '인류'의 표제 한자 어휘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字釋 속의 漢語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어휘교육서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살피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논문으로는 郭剛의 <《訓蒙字會》俗呼研究>(廈門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를 들 수 있다. 《訓蒙字會》의 각部に 등장하는 漢語 어휘를 조사하고 수록 漢語 어휘의 발전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기존의 연구 시야에서 벗어나 중국어학의 측면이나 어휘학의 측면에서의 《訓蒙字會》의 가치를 강조하고 최세진의 언어교학에 대한 교육관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訓蒙字會》에 등장하는 漢語 語彙의 양상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힌 논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 바탕을 두고, 실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한 ‘人類’部를 표본으로 하여 다음 내용을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訓蒙字會》 주석 중의 ‘俗’의 의미를 최세진의 사전류 저작 중 ‘凡例’조항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訓蒙字會》 ‘人類’부의 수록 漢語를 모두 조사하여 그 성격을 밝힘으로써, 《訓蒙字會》의 漢語 수록의 기준을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人類’부에 수록된 漢語를 《老乞大》·《朴通事》 및 近代漢語 口語 저작에서 그 用例를 찾아보고 근대한어구어 어휘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訓蒙字會》에 수록된 漢語의 성격을 밝히고 그에 대한 연구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2. 《訓蒙字會》 ‘人類’ 部の 漢語 어휘

### 2.1 《訓蒙字會》 註釋 중의 ‘俗’의 의미

《訓蒙字會》는 표제 한자 아래에 해당 한자의 우리말 음과 뜻을 싣고, 필요

한 경우 註釋을 달았다. “전체 3360자의 7割 정도가 註를 가지고 있으니 各字마다 註를 다는 것을 原則으로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며, 그 내용을 보면 字音, 意味, 用例, 中國 俗語 등 실로 多方面에 걸쳐 있다.”(이기문:1971)

《訓蒙字會》의 註釋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俗’이라는 표지이다. 이 ‘俗’의 의미에 대해서는 책의 凡例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訓蒙字會》 凡例는 모두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제7조항은 ‘俗’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註內稱俗者指漢人之謂也。人或學漢語者可使兼通故多收漢俗稱呼之名也。又恐註繁亦不盡收。

註 안에 ‘俗’이라고 칭한 것은 漢人이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들 중 혹 漢語를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겸하여 통하게 하기 위해서 漢人이 민간에서 칭하는 이름을 많이 수록한 것이다. 또한 註釋이 번잡스러울까 우려하여 다 실지는 않았다.

위의 범례 중 ‘俗’은 두 번 나오는데, 앞의 ‘俗’은 최세진이 스스로 ‘漢人이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두 번째 ‘漢俗稱呼’의 ‘俗’은 ‘漢人이 민간에서 칭하는’의 ‘민간에서’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俗’에 대한 언급은 최세진이 편찬한 《老乞大》·《朴通事》를 위한 전문 어휘집 《老朴集覽》의 凡例 제 3조항에서도 볼 수 있다.

凡俗用言語諸字, 有於本義之外, 別借爲義者。今除本義, 只舉俗用之義爲解。

무릇 민간에서 쓰는 여러 글자는, 본래 뜻 이외에도 따로 빌려 쓰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본뜻을 제외하고 단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뜻을 들어 풀이하고자 한다.

위의 凡例의 내용은 《老朴集覽》에서 漢語의 뜻을 제시할 때, 단어의 본뜻보다는 당시 민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실겠다는 내용이다. 위의 凡例에서도 ‘俗’은 ‘민간에서’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최세진이 편찬한 음운서 《四聲通解》의 凡例에도 ‘俗’은 여러 차례 등

장하는데, 그 한 예로 제5항의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間有今俗所取用而古釋不著者, 今又添載, 或用鄉語直解。

사이사이에 오늘날 민간에서는 취하여 쓰지만 옛날 주석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지금 또한 첨가하여 실었는데 때로는 우리말로 직접 해석하였다.

여기에서의 ‘俗’ 또한 ‘민간에서’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최세진이 편찬한 사전류 서적 《訓蒙字會》, 《老朴集覽》, 《四聲通解》의 凡例에 등장하는 ‘俗’의 의미는, ‘漢人이 민간에서 사용하는’의 뜻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최세진이 사전류 서적을 편찬할 때 중국어 口語 표현을 매우 중시하여 일관되게 중점을 두어 신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활용되고 있는 민간 口語를 교재에 수록하여 교육시키고자했던 최세진의 실용적인 교육관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 2.2 ‘人類’ 部の 수록 漢語와 漢語 선정의 기준

《訓蒙字會》는 上·中·下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제별로 3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上卷(16개 항목): 天文 地理 花品 草卉 樹木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蠃蟲 身體 天倫 儒學 書式

中卷(16개 항목): 人類 宮宅 官衙 器皿 食饌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裝 彩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

下卷(1개 항목): 雜語

‘人類’ 부는 《訓蒙字會》 中卷의 첫 번째 항목으로 112개의 표제 한자를 담고 있다. 112개의 한자는 4자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 28구를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수록된 한자를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皇帝君主 后妃嬪嬙 儲副世代 邦國辟王 公候宰相 將帥駙卿 臣僚員吏  
 士隸民氓 閹宦閹閹 卒伍軍丁 泗漈游泳 傭雇匠役 漁獵樵牧 染畫算曆  
 神佛鬼魔 仙道尼僧 賓客羈旅 伴侶友朋 娼妓術術 傀儡優伶 醫卜呪僧  
 商賈農工 巫覡媒妁 瞽瞍盲矇 東夷西戎 南蠻北狄 倭韃羌虜 劫盜寇賊

수록 한자는 위로는 ‘皇帝君主’에서부터 아래로는 ‘劫盜寇賊’까지 주로 신분의 상하에 따라 총망라되어 있으며, ‘東夷西戎’·‘南蠻北狄’과 같이 주변 민족을 알잡아 일컫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 최대한 같은 성격의 한자를 4자 한 구로 배치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112자 중에서 ‘俗’자가 주석에 포함된 표제 한자는 모두 42자인데, 漢語 어휘가 ‘俗呼~’로 소개된 경우가 31회<sup>3)</sup>, ‘俗稱~’으로 소개된 경우가 11회 등장한다. ‘俗呼’, ‘俗稱’ 뒤에 소개된 단어를 보면 모두 漢語 어휘를 소개한 것으로, ‘俗呼’, ‘俗稱’을 따로 구분해서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중 10개의 표제한자의 주석에서는 하나의 표제 한자 아래에 여러 개의 漢語 어휘를 수록하고 있어서 이 漢語까지 모두 포함하면 ‘人類’ 부에 소개된 漢語 어휘는 모두 54개로 볼 수 있다.

《訓蒙字會》 ‘人類’ 부에 수록된 112개의 표제 한자와 그 註釋 안에 ‘俗呼~’, ‘俗稱~’ 뒤에 소개된 漢語는 다음 표와 같다.

번호	한자	漢語	번호	한자	漢語	번호	한자	漢語	번호	한자	漢語
1	皇		2	帝		3	君		4	主	
5	后		6	妃		7	嬪		8	嬙	
9	儲		10	副		11	世		12	代	
13	邦		14	國		15	辟		16	王	
17	公		18	候		19	宰		20	相	

3) ‘人類’ 部 표제자 중 ‘妁’은 ‘媒’ 뒤에 배치되었다. 각각의 주석을 보면, ‘媒: 동신미俗呼男曰人’, ‘妁: 동신작女曰媒婆總稱中人’으로 되어 있으므로, ‘妁’의 주석 중 ‘女曰’ 앞에는 ‘俗呼’가 생략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妁’ 또한 ‘俗呼’가 출현하는 어휘로 계산하였다.

21	將		22	帥		23	駙		24	卿	
25	臣		26	僚		27	員		28	吏	外郎
29	士		30	隸	皂隸, 牢子	31	民		32	氓	
33	闈	火者	34	宦		35	闈		36	閈	
37	卒	巡兵邏卒	38	伍		39	軍	馬軍, 步軍	40	丁	
41	泗	泗水	42	迷	謎水	43	游		44	泳	
45	傭		46	雇		47	匠		48	役	
49	漁	漁戶	50	獵	打捕戶	51	樵	樵夫	52	牧	放牧
53	染	染家	54	畫		55	算		56	曆	
57	神		58	佛	佛子	59	鬼		60	魔	
61	仙		62	道		63	尼	尼姑, 尼婆	64	僧	和尚, 長老
65	賓	賓客	66	客	客人	67	羈		68	旅	
69	伴	火伴	70	侶		71	友		72	朋	朋友
73	娼		74	妓	彈的	75	術		76	術	術術
77	傀		78	儡	鬼臉兒	79	優	把劇的, 雜劇	80	伶	樂工, 樂人
81	醫	太醫	82	卜	課命的, 算卦的, 算命的	83	呪	法師	84	僧	牙子, 牙人
85	商	貨郎兒	86	賈	鋪家, 鋪戶, 行家	87	農	佃戶	88	工	作工的
89	巫	婁婆	90	覲	端公	91	媒	媒人	92	妁	媒婆, 中人
93	瞽	沒眼的	94	瞽	瞎廝	95	盲		96	矇	矇子
97	東		98	夷		99	西		100	戎	
101	南		102	蠻		103	北		104	狄	
105	倭	倭子	106	韃	韃子 (或作韃)	107	羌		108	虜	
109	劫	強盜	110	盜		111	寇		112	賊	

[표1] 《訓蒙字會》 '人類' 部の 표제한자 및 漢語 어휘

이것으로 보았을 때 '人類' 부에는 총 112개의 표제 한자 중 42개의 표제 한자에 '俗'으로 소개된 漢語 어휘가 54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漢語를 보면, 28번째의 표제한자 '夷'에서부터 漢語 어

휘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하급관리를 나타내는 ‘外郎’을 시작으로 중·하층민들의 다양한 직업 호칭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人類’부에 소개된 漢語를 등장 순서대로, 직업군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하급관리 혹은 군인: 外郎, 皂隸, 牢子, 火者, 巡兵邏卒, 馬軍, 步軍
- 2) 어업, 수렵, 방목, 염색 관련 종사자 혹은 그 활동: 泗水, 謎水, 漁戶, 打捕戶, 樵夫, 放牧, 染家
- 3) 불교 관련 종사자: 佛子, 尼姑, 尼婆, 和尚, 長老
- 4) 손님, 동료, 벗: 賓客, 客人, 火伴, 朋友
- 5) 예능 종사자 혹은 예능 명칭: 彈的, 衍衍(本作行院), 鬼臉兒, 把劇的, 雜劇, 樂工, 樂人
- 6) 의사, 점술사, 법사: 太醫, 課命的, 算卦的, 算命的, 法師
- 7) 중개인, 상인: 牙子, 牙人, 貨郎兒, 鋪家, 鋪戶, 行家
- 8) 농업, 수공업 관련 종사자: 佃戶, 作工的
- 9) 무당, 중매인: 婁婆, 端公, 媒人, 媒婆, 中人
- 10) 장님: 沒眼的, 瞎廝, 矇子
- 11) 왜인, 타타르인: 倭子, 韃子
- 12) 강도: 強盜

이를 통해 볼 때, 최세진은 ‘人類’부에서 당시 중국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 호칭 어휘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세진이 《訓蒙字會》의 교육 대상을 양반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국에 가서 중국인과 교류하고 교역하는 활동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휘를 중점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人類’부에 수록된 漢語를 통해 최세진의 실용 중심 교육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 2.3 近代漢語 저작에서의 용례 및 近代漢語 어휘로서의 특징

### 2.3.1 近代漢語 저작에서의 용례

《訓蒙字會》에서 소개된 漢語가 과연 당시 민간에서 통용되었던 口語 어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선 高麗·朝鮮시대의 대표적인 漢語 회화교재였던 《老乞大》·《朴通事》에서 그 用例를 찾아볼 수 있다. '人類部'에 소개된 54개의 漢語 어휘 중에서 《老乞大》·《朴通事》에서 그 用例를 찾아볼 수 있는 어휘는 총 21개이다. 또한 《近代漢語大詞典》 및 《漢語大詞典》에서도 近代漢語 저작에 쓰인 用例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분류한 직업군별 어휘 분류에 따라 用例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하급관리 혹은 군인: 外郎, 皂隸, 牢子, 火者, 巡兵邏卒, 馬軍, 步軍

(1) 該管的外郎也受了些錢財。(《朴諺》77/II59b<sup>4</sup>)

담당 관리도 금품을 받았다.

(2) 官人們引着幾箇皂隸, 把老李拿着背綁了。(《朴諺》54/II28b)

관인들이 옥리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이가를 잡아다가 묶었다.

(3) 年時牢子們走的你見來麼?(《朴諺》72/II52a)

작년에 옥리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당신 보았습니까?

(4) 近前火者催何急, 惟恐君王怪到遲。(元·張昱《宮中詞》之十八)(출처: 漢語大詞典)

일전에 환관이 아주 급하게 재촉했었는데, 아마도 임금께서 늦게 온다고 탓하실까봐 두려워서 그랬나보다.

(5) 二人聞言, 急點手下巡兵二百餘人。(《宣和遺事》前集)(출처: 漢語大詞典)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자, 급히 수하의 순찰병 이백 여명을 점검했다.

(6) 久而稍聽其出入, 遂伺隙告邏卒, 執僧到官, 伏其辜。(宋·洪邁《夷堅志支景·王武功妻》)(출처: 漢語大詞典)

그가 드나드는 것을 오랫동안 은밀히 듣고, 곧 몰래 나졸에게 알려, 승려를 잡아다가 관아에 가서 그 잘못을 고하게 하였다.

4) 본고에서 사용한 《老乞大》·《朴通事》 판본의 약칭: 《舊本老乞大》→《舊老》, 《翻譯老乞大》→《翻老》, 《老乞大新釋》→《老新》, 《朴通事諺解》→《朴諺》. 출처 표시는 차례대로 '서명, 단락순서/상·중·하편, 쪽, 좌우'를 나타냄.

- (7) 其餘步兵，依着馬軍向前而立。(《英烈傳》第五一回)(출처: 漢語大詞典)  
그 남은 보병은 마군(馬軍)에 의지해 앞쪽으로 향하여 섰다.
- (8) 比金吾步軍來捕，三人已去遠。(清·和邦額《夜譚隨泉·三官保》)(출처: 漢語大詞典)  
금오(金吾)의 보군(步軍)과 잇따라 붙잡으러 왔는데 세 사람은 이미 멀리 달아났다.

2) 어업, 수렵, 방목, 염색 관련 종사자 혹은 그 활동: 泗水, 澌水, 漁戶, 打捕戶, 樵夫, 放牧, 染家

- (1) 我則見樵夫荷担來山口，釣叟鳴榔返渡頭。(元·缺名《醉寫赤壁賦》第二折)  
(출처: 近代漢語詞典)  
나는 그저 나무꾼이 나뭇짐을 지고 산 입구에 오는 것을 보았고, 낚시하는 늙은이가 배 고물을 두드리며 나루터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 (2) 染家，你來！看生活。(《朴諺》42/113b)  
염색하는 이, 이봐! 물건을 좀 보게.

3) 불교 관련 종사자: 佛子, 尼姑, 尼婆, 和尚, 長老

- (1) 衆僧滴淚道：“我們這一國君王，偏心無道，只喜得是老爺等輩，惱的是我們佛子。”(《西游記》第四四回)(출처: 漢語大詞典)  
여러 중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였다. “우리 이 나라의 군왕은 마음이 편벽되고 무도하여, 좋아하는 것은 그저 늙은 (도사의) 무리들이며, 싫어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입니다.”
- (2) 我當初早披剃入空門也，做个尼姑去，今日免艱辛。(明·高則誠《琵琶記》第二五出)(출처: 近代漢語詞典)  
나는 예전에 일찍이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불가에 입문하여 비구니가 되었기에 오늘날 고통을 벗었다.
- (3) 一箇和尚偷弄別人的媳婦。(《朴諺》17/132b)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훔쳐 희롱하였다.
- (4) 長老的佛像鑄了麼？(《朴諺》80/1112b)  
장로의 불상은 다 주조했느냐?

4) 손님, 동료, 벗: 賓客, 客人, 火伴, 朋友

- (1) 早起家裏有客人來，打發他去纔來。(《朴諺》34/156b-157a)  
아침에 집에 손님이 와서, 그를 전송하고 이제야 왔습니다.
- (2) 那火伴如今趕上來了不曾？(《鰾老》1/11b7-8)

그 동료는 지금 뒤따라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 (3) 咱幾箇好朋友們, 這八月十五日仲秋節, 斂些錢做翫月會。(《朴諺》13/I23a)  
우리 몇 명의 좋은 친구들이 이번 8월 15일 중추절에 돈을 좀 거두어 달구경 연회를 엽시다.

5) 예능 종사자 혹은 예능 명칭: 彈的, 術術(本作行院), 鬼臉兒, 把劇的, 雜劇, 樂工, 樂人

- (1) 彈的們, 動樂器。(《朴諺》1/I6b)  
악공들은 악기를 연주하시오.
- (2) 又是一箇銅背, 鑲背造化, 帶着鬼臉兒, 翅兒舞。(《朴諺》40/II1b)  
또 수컷 종다리, 암컷 종다리 노릇을 하는데 탈을 쓰고 깃털 춤을 춘다.
- (3) 有呈諸般把戲的那? (《朴諺》40/II2a)  
여러 잡기(雜技)하는 사람들이 있소?
- (4) 也會做院本, 也會唱雜劇。要飽一只羊, 好酒十瓶醉。(元·王實甫《朴麗春堂》第一折)(출처: 近代漢語詞典)  
원본(院本)도 할 수 있고 잡극(雜劇)도 부를 수도 있다. 배부르려면 양 한 마리는 있어야 하고 좋은 술은 열 병은 있어야 취한다.
- (5) 叫教坊司十數箇樂工和做院本諸般雜技的來。(《朴諺》1/I5b)  
교방사(教坊司)의 악공(樂工) 열 여명과 원본(院本)과 여러 잡기하는 사람들을 불러라.
- (6) 高贊叫樂人住了吹打, 聽時, 一片風聲, 吹得怪響。(《醒世恒言·錢秀才錯占鳳凰壽》)(출처: 漢語大詞典)  
高贊이 악인(樂人)을 불러 피리를 불고 북을 두드리게 했다. 듣고 있을 때 한 조각 바람 소리가 나더니 이상한 소리가 났다.

6) 의사, 점술사, 법사: 太醫, 課命的, 算卦的, 算命的, 法師

- (1) 太醫哥! 你教與我這好法兒。(《朴諺》5/I13b)  
태의(太醫) 양반! 당신 나에게 이 좋은 방법 좀 가르쳐주시오.
- (2) 至正二年八月內, 到于周大家課命, 將伊女周月惜八字看算。(明·陶宗儀《南村輟耕錄》第十三卷)(출처: 近代漢語詞典)  
지정(至正) 2년 8월에 주(周) 대가(大家)에 점치러 가서, 그 집 딸 周月惜의 팔자를 보았다.
- (3) 咱們就到那裏算卦。(《老新》110/45a)  
우리 그곳에 가서 점을 치자.
- (4) 聞得樞密院東有個算命的, 開個鋪面, 談人禍福, 无不奇中。(《初刻拍案惊奇》)

第三八卷)(출처: 近代漢語詞典)

듣자니 추밀원(樞密院) 동쪽에 점쟁이가 있어 가게를 차려 사람의 화복(禍福)을 말해주는데 신기하게도 들어맞지 않는 게 없었다.

- (5) 那法師搖着法環走來任遷架子邊, 看着任遷道: “招財來, 利市來, 和合來, 把錢來!”(《三遂平妖傳》第九回)(출처: 近代漢語詞典)

그 도사는 요령을 흔들며 任遷의 시령에 다가가 任遷을 보며 말하였다. “재운을 불러들이고, 이익이 오고, 화합이 오고, 돈이 오거라!”

7) 중개인, 상인: 牙子, 牙人, 貨郎兒, 鋪家, 鋪戶, 行家

- (1) 這三箇火伴, 兩箇是買馬的客人, 一箇是牙子。(《繡老》60/117b6-9)

이 동행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말을 파는 손님이고 한 사람은 중개인입니다.

- (2) 我是箇牙人, 也不向買主, 也不向賣主。(《舊老》60/117b6-9)

나는 중개인이니, 사는 사람 편도 들지 않고, 파는 사람 편도 들지 않습니다.

- (3) 我打扮做個貨郎兒, 担着些零碎去尋那個艷質, 他來買我些東西。(元·缺名《黃花峪》第二折)(출처: 近代漢語詞典)

나는 장사꾼 차림을 하고 잡다한 물건을 지고 그 미인을 찾아갔는데 그녀가 와서 내 물건을 샀다.

- (4) 店主人家引著幾箇鋪家來, 商量人蔘價錢。(《舊老》97/35a)

주점 주인이 가게 주인 몇 명을 데려다가 인삼 가격을 의논하였다.

- (5) 如扇子值二錢者只給一錢, 他物類是, 鋪戶甚苦之。(明·何良俊《四友齋叢說》第十二卷)(출처: 近代漢語詞典)

예를 들어 2전짜리 하는 부채를 단지 1전에 주었는데, 다른 물건도 이와 같았다. 상점주인은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다.

- (6) 連日將揚州富戶、行家、……。(《隔帘花影》第三六回)(출처: 近代漢語詞典)

연일 양주(揚州)의 부호(富戶)와 장사꾼……을 데리고,

8) 농업, 수공업 관련 종사자: 佃戶, 作工的

- (1) 那里是甚么光棍, 就是他的佃戶!(《儒林外史》第四回)(출처: 近代漢語詞典)

어디 무슨 건달이라고 그래, 그저 그의 소작농일 뿐이야!

9) 무당, 중매인: 雙婆, 端公, 媒人, 媒婆, 中人

- (1) 也不索喚雙婆搗鼓邀神。(元·張國賓《羅李郎》第三折)(출처: 近代漢語詞典)

무당을 불러 북을 치고 신을 부를 필요도 없다.

- (2) 蜀人之事神也, 必馮巫, 謂巫爲端公。(清·唐甄《潛書·抑尊》)(출처: 近代

漢語詞典)

촉(蜀)나라 사람은 신을 섬길 때에 반드시 무당에 의지하는데 무당을 일컬어 '端公'이라고 부른다.

- (3) 媒人也有福, 正着了, 也多尋鈔。(《朴諺》22/142a-42b)

중매인도 복이 있지, 딱 맞춰져서 돈을 꽤나 받았네.

- (4) 院子, 將猪首羊蹄, 打發媒婆回去。(明·缺名《商略三元記》第六出)(출처: 近代漢語詞典)

애야! 돼지머리와 양 발굽을 가져다가 매파에게 싸주어 가져가게 해라.

- (5) 產業交關少不得立個文書, 也要用着個中人才使得。”(《二刻拍案惊奇》卷十六)(출처: 漢語大詞典)

재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중개인을 써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10) 장님: 沒眼的, 瞎廝, 瞎子

11) 왜인, 타타르인: 倭子, 韃子(或作撻)

- (1) 萬曆甲戌三月, 倭子三人, 隨破船漂至登州。(清·褚人穫《堅瓠七集·倭子能詩》)(출처: 漢語大詞典)

만력(萬曆) 갑술(甲戌)년 3월에 왜인 세 사람이 난파한 배를 따라 표류하여 등주(登州)에 다달았다.

- (2) 況你這幾箇火伴的模樣, 又不是漢人, 又不像撻子, 不知是甚麼人。(《老新》39/16b)

하물며 당신의 이 몇 명 동행의 행색은, 한인(漢人)도 아니도 타타르인도 아니니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소.

12) 강도: 強盜

- (1) 那廝們只是夜貓, 不是強盜。(《朴諺》59/1135b)

그 놈들은 그냥 올빼미지 강도는 아니야.

이상 예문을 통해, 《訓蒙字會》에 소개된 대부분의 어휘가 近代漢語 口語 저작인 《老乞大》, 《朴通事》 및 元雜劇, 明·清小說 등에 널리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3.2 近代漢語 어휘로서의 특징

앞에서는 수록 漢語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용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수록 漢語의 성분 語素 및 한어 어휘의 변천의 측면에서 近代漢語 어휘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수록 漢語를 결합 어소와 시대적 속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칭하는 접미사 또는 語素와 결합된 어휘:

- ① 子: 牢子, 佛子, 牙子, 矇子, 倭子, 韃子
- ② 者: 火者
- ③ 戶: 漁戶, 打捕戶, 鋪戶, 佃戶
- ④ 夫: 樵夫
- ⑤ 婆: 尼婆, 雙婆, 媒婆
- ⑥ 公: 端公
- ⑦ 的: 彈的, 把劇的, 課命的, 算卦的, 算命的, 作工的, 沒眼的
- ⑧ 兒: 鬼臉兒, 貨郎兒
- ⑨ 工: 樂工
- ⑩ 人: 客人, 樂人, 牙人, 媒人, 中人
- ⑪ 家: 染家, 鋪家, 行家
- ⑫ 廝: 瞎廝<sup>5)</sup>

2) 외래 어휘: 和尚

3) 신출 어휘: 巡兵邏卒, 泅水, 謎水, 尼姑, 衍衍, 雜劇, 法師, 強盜

4) 의미의 변화가 있는 어휘: 外郎, 皂隸, 長老, 火伴, 太醫

5) 전통 어휘: 放牧, 賓客, 朋友, 馬軍, 步軍

‘人類’部 수록 漢語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및 語素가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직업 호칭을 소개하고 있는 ‘人類’부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며 접미사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近代漢語 어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sup>6)</sup>

5) 《老朴集覽》<單字解>의 표제어 ‘廝’의 주석에도 예시 단어로 ‘瞎廝’가 수록되어 있다. 【廝】卑賤之稱: 這廝이놈; 又相也: 廝見서르보다; 又凡指人, 亦曰廝小廝아히, 瞎廝쇼경.”(《集覽·單字解》 2-2)

이 밖에도 '和尚'<sup>7)</sup>과 같은 외래어 및 중세·근세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신출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外郎', '皂隸', '長老', '火伴', '太醫'와 같은 단어는 고대에도 사용되었지만, 점차 그 의미에 변화가 생긴 어휘들이다. '外郎'은 관직명이었지만 近代漢語에서는 주로 관아의 하급관리를 지칭할 때 쓰이고<sup>8)</sup>, '皂隸'는 원래 미천한 일을 하는 잡부의 뜻이었으나 후에는 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長老'는 원래 노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이후 승려에 대한 존칭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火伴'은 원래 군대에서 함께 불을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sup>9)</sup>, 근대한어에서는 주로 일을 함께 하는 동료로 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太醫'는 고대에 궁중에서 의술을 관장하는 관직명으로 사용되었으나 근대한어에서는 의사를 두루 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밖에 '放牧', '賓客', '朋友', '馬軍', '步軍' 등의 어휘는 고대부터 계속해서 사용된 한어로 모두 다음절 어휘를 소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訓蒙字會》 어휘는 그 용례나 특징으로 보았을 때 16세기 중국 민간에서 실제로 쓰였던 口語 어휘를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6) “近代漢語時期，詞綴的發展出現新的繁榮，一方面產生了衆多新興的詞綴，如“兒”“們”“家”(代詞詞綴)是“地”“生”“打”“巴”“里”等，另一方面，許多舊有的詞綴如“阿”“老”“子”“頭”等用法上也有了顯著的發展變化。”(《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66쪽)
  - 7) “這是‘Upādhyāya’的音譯訛傳。”(梁曉虹，〈佛教典籍與近代漢語口語〉，《近代漢語研究(二)》，291쪽)
  - 8) 崔世珍은 《老朴集覽》 중 <朴通事集覽>에도 ‘外郎’을 표제어로 수록하여, 당시 민간에서 쓰인 ‘外郎’의 뜻과 발음을 풀이하였다. 【外郎】泛稱各衙門吏典之号。俗嫌其犯于員外郎之号，呼外字爲上聲。(관가의 아전을 두루 일컫는 호칭이다. 민간에서는 ‘원외랑(員外郎)’의 호칭과 혼동되는 것을 꺼려하여, ‘外’자를 상성(上聲)으로 발음한다.)”(《集覽·朴通事集覽》上 1-2)
  - 9) 崔世珍은 《老朴集覽》 중 <老乞大集覽>에도 ‘火伴’을 표제어로 수록하여, ‘火伴’의 원래 의미를 풀이하였다. 【火伴】古者從軍，十人爲一火，調度器具共之，火長一人，主炊爨，故曰火伴。(옛날에 종군하면 열 사람을 하나의 화(火)로 하여 기물을 배치하고 그것을 함께 쓰게 했다. 화장(火長)은 한 명이며 불 때고 밥 짓는 일을 주관했다. 이런 연고로 ‘火伴’이라 한다.)”(《集覽·老乞大集覽》上 1-1)

## 2.4 ‘人類’部 漢語의 성격과 특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訓蒙字會》의 전체 표제자 주석의 25% 정도에 漢語 어휘가 수록되었고, ‘人類’부의 표제자 주석 또한 35% 이상에서 漢語 어휘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漢語 語彙 학습량은 《訓蒙字會》의 저자 崔世珍이 漢語 학습을 《訓蒙字會》 구성의 중요부분으로 배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人類’부의 漢語 어휘는 다음과 같은 성격 및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서민층이 종사하는 일이나 직업 호칭 혹은 그와 관련된 일을 나타내는 어휘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人類’부는 위로는 황제부터 아래로는 도적까지 다양한 인간 부류의 명칭을 소개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주석 중 漢語가 소개된 표제어는 28번째 글자 ‘吏’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皇帝君主, 后妃嬪嬙, 儲副世代, 邦國辟王, 公侯宰相, 將帥駙卿, 臣僚員吏’ 중 ‘吏’를 제외하고는 어느 글자에도 ‘俗’으로 소개되는 漢語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제 글자들은 경서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개념이나 인물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그와 비교하여 ‘吏’는 말단 관리로서 사람들이 도처에서 쉽게 접하고 부를 수 있는 직업 호칭임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漢語 어휘 ‘外郎’을 소개한 것이다.

‘外郎’을 시작으로 하여 농업, 어업, 수산업, 목축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나 그 활동, 염색, 수공업 등 2차 산업 종사자, 말단 행정 관리, 의사, 점술사, 법사, 상인, 중매인, 종교인, 예능 관련 등 3차 산업 종사자나 그 활동과 관련된 漢語를 소개하였고, 그 밖에도 손님, 동료, 벗 등 친분관계를 나타내는 호칭 어 및 장님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호칭, 강도에 대한 호칭, 당시 교류가 있었던 왜인, 타타르인과 같은 주변국 사람에 대한 호칭도 등장한다.

이와 같이 ‘人類’부에는 당시에 중국에 간다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 및 그 활동과 관련한 漢語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도(1992)는 漢語 어휘 수록에 대한 이기문(1971)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기문(1971)은 훈몽자회로써 한어 교본을 곁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보고 있다. 그는 한어 어휘를 註에 附記한다해도 그 중국음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거의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서 얻은 한어 지식이란 기껏 당시의 俗語 섞인 중국 책을 읽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데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도는 훈몽자회에서 한어 어휘를 실은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최세진은 御前 통역을 했던 譯官이며 吏文에도 아주 밝았으므로 최세진에게는 단음절어적인 고문이 후대에 오면서 복음절화되었고, 경전을 주석한 주석서나 어록집의 문장은 이미 백화문 형태인 것이 쉽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또 당시에 그런 주석서나 어록집 해석을 억지로 고문 해독 방식으로 푸는 데서 오는 문제점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필자 또한 이상도(1992)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필자 생각으로는 《訓蒙字會》에 漢語를 매우 비중 있게 배치한 이유는 단순히 주석서나 어록집 해석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 가서 생활하고 교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듯이 ‘人類’ 部の 漢語 어휘는 近代漢語의 口語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樵夫, 放牧, 賓客, 客人 등의 어휘는 고대 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 어휘로서 계속 이어져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접미사 子, 戶, 家, 兒 등은 近代漢語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 접미사이며 外郎, ‘火伴’, 太醫 등은 고대 문헌에서도 쓰였지만 원·명·청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뜻이 본뜻과는 다르게 사용된 어휘들이다. 그 밖의 단어들은 대부분 近代漢語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들을 볼 수 있다.

앞으로 《訓蒙字會》에 수록된 漢語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人類’ 部를 표본으로 보았을 때, 《訓蒙字會》에 소개된 漢語는 최세진이 凡例에서 밝힌 바대로 당시 중국 민간에서 사용되었던 口語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한자와 함께 소개되어 있어 近代漢語 어휘 연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결론

본고는 실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풍부한 ‘人類’ 부를 표본으로 삼아 《訓蒙字會》 속의 漢語 어휘의 성격과 연구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訓蒙字會》 주석 중의 ‘俗’의 의미는 최세진의 사전류 저작인 《訓蒙字會》, 《老朴集覽》, 《四聲通解》의 ‘凡例’ 조항의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漢人이 민간에서 사용하는’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둘째, 《訓蒙字會》 ‘人類’ 부의 수록 漢語는 말단 관리 ‘外郎’이라는 호칭부터 농·공·상인, 종교인, 예능인, 의사 등 당시 중하층 일반 서민들의 다양한 직업 호칭과 손님, 맹인, 강도, 주변국 사람 등과 같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에 대한 호칭을 중점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이는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口語 어휘를 학습시키고자 했던 崔世珍의 實用 중심 교육관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人類’ 부에 수록된 漢語는 《老乞大》, 《朴通事》 및 元雜劇, 明·清小說 등 당시 口語 저작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近代漢語 口語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을 칭하는 접미사 및 語素가 매우 다양하게 등장하며 신조어가 소개되어 있고 고대에서 쓰인 어휘라 하더라도 그 뜻이 근세시기에 접어들면서 달리 사용된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는 등 대부분 近代漢語 어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이를 통해 볼 때 《訓蒙字會》는 단순한 한자 교재라기보다는 漢語 학습서로서의 성격도 강한 종합 어학 교재라고 볼 수 있다.

《訓蒙字會》에 수록된 漢語에 대한 연구는 근대한어 어휘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訓蒙字會》의 진정한 교재 성격과 최세진의 교육관을 살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록> 《訓蒙字會》 ‘人類’ 部 원문<sup>10)</sup>

- 皇 님굼황
- 帝 님굼데
- 君 님굼순
- 主 님쥬
- 后 둥궁후又汎稱君主曰
- 妃 둥궁비嬪御次於皇后者亦曰
- 嬪 밋빙女官次於妃又며느리빙太子及王妃皆曰
- 嬪 시녇장女官名
- 儲 여틀더又므딜더貯待也又副也
- 副 버글부儲 | 謂太子也
- 世 누리세當時爲 | 又父子相繼爲 | 又一代爲 | 又三十年爲 |
- 代 마르출디又世 | 年 |
- 邦 나라방
- 國 나라국大曰 | 小曰邦
- 辟 님굼벽又法也
- 王 님굼왕三代天子稱 | 自秦以後列國稱 | 又去聲 | 天下
- 公 구의공又臣職爵首又無私也共也又官所曰 |
- 候 님굼후次於公
- 宰 지샹지周官家 | 又制也
- 相 지샹상本平聲서르샹
- 將 장슈장又平聲장츄장
- 帥 장슌슈又音率領也
- 駙 부맛부尙公主者拜 | 馬
- 卿 벼슬경六 | 六部堂上官
- 臣 싯싯신又列國臣曰陪 |
- 僚 둥관료同官爲 |
- 員 관원원官 |
- 吏 셔릿리掾史 | 屬俗呼外郎又爲官治民曰官 |

10) 《訓蒙字會》叡山文庫本, 檀國大學校出版部(1971). 방점 표기는 생략함.

- 士 ㅅㅅㅅ學以居爲曰 |  
隸 거러치예俗呼皂 | 又曰牢子  
民 빅성민  
氓 빅성밍  
闈 고자엄俗呼火者  
宦 고자환或呼內官又仕也官也  
闈 고자혼又守門者亦曰 | 人  
闈 고자시亦作寺詩寺人孟子  
卒 군스졸俗呼巡兵邏 | 汎稱軍 | 士 |  
伍 군스오五人爲 | 又數名書式作 |  
軍 군스군 俗呼馬 | 步 | 又鍊鐵者曰鐵 |  
丁 슌뎡謂軍保曰餘 | 又曰貼戶又當也值也又零 |  
泗 헤음슈俗呼 | 水  
謎 므즈밋미俗呼 | 水  
游 헤음유又放也又優 | 自如貌  
泳 므즈미영  
傭 삭마돌 용役賃謂雇作者初學字會云다므사리용  
雇 삭마돌 고客作者初學字會云다므사리고  
匠 장신장  
役 브릴역  
漁 고기자블어俗呼 | 戶  
獵 산헝홀렵俗呼打捕戶  
樵 나모빌초俗呼 | 夫  
牧 모실목指 | 童俗稱放 |  
染 므드릴염俗稱 | 家물집  
畫 그릴화 | 工 | 手  
算 헬산謂主 | 者  
曆 칙력력謂主 | 者  
神 신령신兩精相薄謂之 | | 者精氣所化也又鬼之靈者  
佛 부터불俗稱 | 子

- 鬼 꺄꺄꺄陽魂爲神陰魄爲 |  
 魔 꺄꺄마  
 仙 선신선  
 道 도숫도指 | 上又도릿도又길도  
 尼 승니俗呼 | 姑又 | 婆  
 僧 중승俗呼和尙又長老  
 賓 손빙俗呼 | 客  
 客 손꺄俗呼 | 人  
 羈 나ᄫ내꺄又馬勒也  
 旅 나ᄫ내려又軍 | 又衆也  
 伴 벌반俗呼火 | 동모古稱 | 當今稱舍人  
 侶 벌려  
 友 벌우  
 朋 벌봉俗呼朋友  
 娼 너계창  
 妓 너계기俗呼作樂之妓曰彈的  
 術 너계항  
 術 너계원俗稱術 | 本作行院北京南北西三院有妓其夫皆樂工  
 傀 광대꺄  
 儻 광대꺄傀 | 假面戲俗呼鬼臉兒  
 優 노릇바치우俗呼把劇的又曰雜劇又 | 游 | 劣  
 伶 노릇바치령俗呼樂工樂人又樂官曰 | 官  
 醫 의원의俗呼太醫  
 卜 꺄복꺄俗呼課命的算卦的算命的  
 呪 굴축俗呼法師  
 儻 즘회卽馮 | 俗稱牙子牙人馮音장  
 商 흥정홀상行者曰 | 俗稱貨郎兒  
 賈 흥정홀고 坐者曰 | 俗稱鋪家鋪戶行家  
 農 너름지슬농俗稱佃戶謂治人之田者  
 工 공장마치공俗稱作 | 的又巧也

巫 무당무女曰 | 俗呼嬖 婆  
覲 화랑이혁男曰 | 俗呼端公  
媒 둥신미俗呼男曰 | 人  
妁 둥신작女曰媒婆總稱中人  
瞽 쇼경고俗呼沒眼的  
瞶 쇼경수俗呼瞎廝  
盲 쇼경밍或尊之曰先士  
矇 쇼경몽俗稱矇子  
東 동녇동 | 有九夷日本等國  
夷 되이東番或汎稱 | 狄  
西 섯녁서 | 有 | 域諸國  
戎 되송又戎狄汎稱  
南 앵남南有獠蠻總稱蠻子  
蠻 되만南番蛇種  
北 뒤북 | 有韃靼東北女眞西北韋兀  
狄 되덕北番犬種總稱達子  
倭 예와俗稱 | 子卽 | 奴有日本琉球等國  
韃 다대달俗呼 | 子或作獐  
羴 되강西番羊種字從羊  
虜 되로夷狄戎 | 外番總稱  
劫 후릴겁俗呼強盜  
盜 도죽도  
寇 도죽구又凡物盛多曰 |  
賊 도죽적又害也

< 參考文獻 >

- 《訓蒙字會》，서울：檀國大學校出版部，1971.
- 《元代漢語本<老乞大>》，대구：慶北大學校出版部，2000.
- 《原本老乞大諺解(全)》，서울：亞細亞文化社，1980.
- 《奎章閣資料叢書語學編(二)》，서울：서울大學校奎章閣，2003.
- 《奎章閣叢書第八》，서울：京城帝國大學，1943.
- 《奎章閣資料叢書語學編(四)》，서울：서울大學校奎章閣，2004.
- 李丙壽 編校，《老朴集覽考》，서울：進修堂，1966.
- 許少峰，《近代漢語大詞典》，北京：中華書局，2008.
- 《漢語大詞典》，北京：漢語大詞典出版社，2002.
- 김기영(2008),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중심으로 한 최세진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 공주：공주대학교 박사논문.
- 김문기(2009), <어휘 학습서로서의 《훈몽자회(訓蒙字會)》－《훈몽자회》중(中)의 ‘인류’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한글학회, 《한글》 제284호.
- 이기문(1971), 《訓蒙字會研究》，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상도(1992), <訓蒙字會 編纂動機와 特徵>, 서울：중국어연구회, 《중국어연구》 7.
- 이순미(2011), <《老乞大》《朴通事》常用詞彙研究－以《老朴集覽》爲中心>, 上海：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 郭剛(2009), <《訓蒙字會》俗呼研究>, 福建：廈門大學 碩士學位論文.
- 蔣紹愚·曹廣順主編(2005), 《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北京：商務印書館.
- 蔣紹愚·江藍生(1999), 《近代漢語研究(二)》，北京：商務印書館.

< 中文提要 >

《訓蒙字會》是1527年由崔世珍編撰的一本綜合性的漢字學習教材。這本書收錄了3360個漢字，每個字大部分都有注釋，其注釋包括漢字的音義、用法及當時使用的漢語詞彙。該注釋中的漢語詞彙是在‘俗呼’、‘俗稱’等詞下被收錄的，‘俗’表示當時漢人在民間使用的意思。到目前爲止，對於《訓蒙字會》裏被收錄的這八百多個漢語詞彙，還沒有研究者做過具體、專門的研究。

本論文以《訓蒙字會》的“人類”部中的漢語詞彙為研究對象，考察了這些詞彙的階級特徵和語言屬性。本文的考察結果如下：

第一、考察了其詞彙的階級特徵。“人類”部的注釋中被收錄的54個漢語詞彙都是中等或下等階級的職業名稱或者有關此階級的活動詞語，並沒有上等階級的稱呼。這就意味着崔世珍很重視民間中下層老百姓在實際生活當中使用的口語詞彙。

第二、考察了其詞彙的語言屬性。“人類”部的注釋中的漢語大部分都能在近代漢語口語著作，如《老乞大》、《朴通事》以及元雜劇、明清小說中查得到。這就意味着其詞彙很可能是已接近於近代漢語口語的範疇。

筆者認為，通過《訓蒙字會》，我們不僅可以看到16世紀民間漢語口頭語言的實際面貌，而且還能知曉看到崔世珍以實用性為主的教觀。

關鍵詞：訓蒙字會、人類、近代漢語、詞彙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30.	2012. 11. 5.	2012. 11. 18.	2012. 11. 21.	2012. 11. 30.